



사노피, 한독약품 지분 매각 및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주식 100% 매입

양사 간 지분 정리, 현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는 지속

2012년 9월 27일 - 세계적인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Sanofi)와 한독약품은 금일 사노피 그룹이 보유하고 온 한독약품의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지난 1964년 사노피의 전신인 헥스트스(Hoechst)가 한독약품과 맺었던 합작 투자 계약으로 시작된 오랜 지분 관계를 정리한다고 발표했다.

사노피는 제 3자 소유의 (주)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주식을 전부 매입하여 사노피 그룹 소속 4개 국내 법인에 대한 지분을 100% 보유한다고 밝혔다. 사노피 그룹은 국내에서 제약 및 컨슈머 헬스케어(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백신(사노피 파스퇴르), 희귀의약품(젠자임 코리아) 및 동물수의약품(메리알 코리아) 사업에 진출해 있다.

이 같은 양사의 지분 거래는 세부 진행 절차에 따라 이행되며, 2012년 4분기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노피 일본 및 태평양 지역을 총괄하는 제즈 몰딩 선임 부사장은 “사노피의 한국 내 위상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이번 결정은 각각의 사업 영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사노피 소유의 국내 법인들과 함께 한국 시장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것이라는 우리의 확신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사노피는 한국 제약산업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온 한독약품과 라이선싱, 프로모션, 유통 및 제조 등의 분야에서 폭넓게 협력하며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독약품 김영진 회장은 “한독약품은 2006년부터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제 시장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각 사의 성장 발전 전략에 따라 합작 관계를 정리하게 됐다. 그러나 헥스트스에서 아벤티스, 사노피로 이어온 오랜 상호 신뢰와 기존 협력 관계는 앞으로도 양사가 모두 윈-윈(win-win)하는 방향으로 유지 발전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노피(Sanofi)에 대하여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노피(Sanofi) 그룹은 인간 삶의 개선을 위한 치료 솔루션을 연구, 개발 및 제공하는 세계 선두의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서, 파리 (EURONEXT: SAN) 및 뉴욕 (NYSE: SNY)에 상장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가 전문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세노비스)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백신(사노피 파스퇴르), 희귀질환치료제(젠자임 코리아), 동물수의약품(메리알 코리아)을 통해 예방에서 치료까지, 전문의약품에서 건강기능식품까지,



사람에서 동물까지, 환자들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는 다각화된 헬스케어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한독약품에 대하여

한독약품(대표이사 회장 김영진, www.handok.co.kr)은 1954년 설립 이후 핵스트, 아벤티스, 사노피 등 세계적 제약회사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해 왔으며,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제약회사로 성장을 이루어 왔다. 서울 역삼동 본사, 10개 지방사무소, 충북 음성 공장에 75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주요 전문의약품으로는 ▲당뇨병치료제 아마릴, 아마릴 M, 아마릴멕스, 가브스 ▲고혈압치료제 테벤텐, 트리테이스, 트리아핀 ▲폐동맥고혈압치료제 트라클리어 ▲전립선치료제 자트랄 XL ▲백신 아박심, 아다셀, 뉴모 23 등이, 일반의약품으로는 소화제 웨스탈, 금연보조제 니코스탑 등이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네이처셋(NatureSet)이 있다.